

# 光日春秋

전 흥택



위키피디아(온라인 무료 백과사전)는 대규모 협업(collaboration)에 의한 혁신과 가치창출 방식이라는 위키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백과사전은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열정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임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기업은 참여의 시대가 성공의 기회를 넓혀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화학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P&G (Procter and Gamble)사는 R&D 인력이 7천500명이나 되지만 화학업계의 혁신 가속화로 선두자리 유지가 벅차게 되었다. P&G사는 해결책으로 연구 인력을 늘리는 대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관련된 아이디어의 50%를 회사 밖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혁신경쟁에서 앞서게 되었다. R&D의 아웃소싱은 기업에서 제시하는 R&D 과제와 전 세계 과학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혁신적인 네트워크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산 최고기 수입의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최근의 촛불집회는 이러한 대규모

협업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키경제'가 정치, 사회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촛불집회는 웹을 기반으로 자발적 조직화에 의한 대규모 협업이라는 위키경제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독립적인 많은 시민기자들이 집회현장을 직접 취재하여 뉴스를 만들고 이것이 기성 미디어 뉴스를 대체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 것도 수평적인 자발적 조직화에 의한 대규모 협업이라는 위키경제의 기본원리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위키경제'와 촛불집회

그러나 웹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협업이 분명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일부에서 위키피디아 같은 협업 커뮤니티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집단주의'를 대표한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똥녀' 사건, 폭력전경의 신상공개, 광우병에 대한 일부 과담의 급속한 전파와 같은 현상은 온라인 집단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협업에 기반을 둔 위키경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주의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감

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특성으로 한다.

그러나 위키경제에서의 대규모 협업은 자유로운 자신의 선택과 자발적 연대의 결과이다. 따라서 과잉 율령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메카니즘만 강구될 수 있다면 위키경제의 대규모 협업이 집단적인 우를 범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질서관리, 비폭력의 목소리가 일부 폭력의 목소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메카니즘의 예라고 하겠다.

대규모 협업에 의한 가치창출이라는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위키경제시대에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비단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정당 등 정치와 관련된 조직들도 리눅스와 같은 오픈 소스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도 오픈 소스 방식에 의한 대규모 협업으로 최상의 정책이 개발되어 지금과 같은 갈등 재생산의 촛불집회가 사라지는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 기대해 본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전국 번진 '촛불 민심' 국정쇄신 서둘러야

6·10민주항쟁 21주년인 지난 10일 전국은 성난 민심으로 들끓었다. 서울과 광주, 부산 등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 50만명 이상이 미국산 최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을 밝혔다. 광주에선 3만여명이 금남로 집회에 나와 6·10항쟁 이후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과격·폭력시대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많은 인파가 도심 한복판에서 시위를 벌였는데도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광주에선 한달여동안 계속된 비폭력 평화집회를 이어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세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산 최고기 수입 과다로 탄핵이 불은 민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이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어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0여일 만에 어찌다 이 지경까지 몰렸는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국정은 총체적 위기다. 정치는 실종됐고 각종 경제지표는 온통 빨간불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계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최근 국정혼란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태가 왜 이렇게 악화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민심은 반정부 구호에서 드러나듯 단순히 최고기 수입협상 과정의 무능과 소통 부재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권한된 인사와 선부른 정책 남발 등 국정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다. 아마추어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악화된 민심이 확산되느냐, 수습되는냐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민심의 실체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철저한 반성을 거쳐 인적쇄신을 비롯 국정쇄신을 서두르길 바란다. 국정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 기업환경개선 '벌미' 수도권 규제 완화라니

정부가 어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수도권 용에 치우쳐 향후 대규모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자립기반을 붕괴시킬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수도권과 지방간 취·등록세 차이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광주, 문산 등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공장 신설 탄력이 크게 낮춰졌다. 또 지방의 3배에 달하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6%에서 2%로 내렸다. 기업환경개선은 이름뿐이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지방의 반발은 거세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대책을 수도권 규제 전면 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와

공동대응기로 했다. 지방의 반발은 당연하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 추진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자립기반 쇠퇴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나 농지 및 산지 규제 등 수도권 땅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도권은 또다시 부동산 광풍에 휩쓸릴 것이다. 국토 난개발에 따른 환경과 파괴도 큰 문제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는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살린다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는가.

## 無等鼓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블카는 지난 1962년 운행을 시작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다. 관광 목적으로 건설됐고 한때 서울 관광에서 빠지지 않는 코스 중의 하나였다.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인 설악산과 내장산은 물론 해남 두륜산 등 전국 주요 명승지에 설치돼 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전국적으로 줄잡아 10여개 지자체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남해안 일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전경련 등 재계에서도 규제를 풀 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주무 부서의 환경부도 최근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결성하고 해당 지자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렴해 연말

까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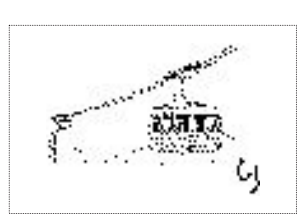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 모두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영암군은 관광과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 정상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 회수를 위해서라도 명승지에 설치돼 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원들도 지리산을 찾는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들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대안으로 지난해부터 노고단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토착 동식물들의 보고인 국립공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만의 소유가 아니다. 6·25 전쟁 이후 전 국토가 황폐화됐을 때 지리산 등지에 가깝스로 살아남은 대형 포유동물들이 전국으로 서식지를 넓혀나가기도 했다.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민 여론 수렴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 과제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 케이블카



##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경호



나야 나, 인어공주. 왕자와 사랑을 끝내 이루지 못해서 물거품이 되어 버린 슬픈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지. 안데르센 아저씨가 나를 비련의 여주공으로 써주는 바람에 모두들 나를 가냘픈 청순 가련형 이미지로 알고 있을 거야. 나처럼 바다 속 공주생활을 꿈꾸는 사람도 있겠다. 사실 내 미모를 유지하면서 바다 생활을 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줄게.

먼저 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피부를 가졌어. 목욕탕 물속에 오래 있으면 손바닥이 쪼글쪼글해진 경험이 누구나 있을텐데, 나도 그래. 손바닥이랑 발바닥 피부 세포 중에서도 특히 각질부가 물을 많이 흡수해서 그렇게 된다더라. 난 손바닥뿐만 아니고 허리 아래로 물고기 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쪼글쪼글해져. 상상이 안되지? 공주 피부는 매끄러운 것만 같은데 말야. 이런 과학적으로 농도가 낮은 쪽의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삼투현상 때

그래서 바닷물고기의 아가미에서는 소금 성분을 뱉음으로 내보내고 오줌도 아주 진한 오줌으로 조금만 내보내는 거지. 명색이 공주가 오줌 얘기하니까 민망하지만 바다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더라. 한 가지 더! 잠수병이라고 들어 봤지? 깊은 물속에서 잠수를 하던 잠수부들이 급하게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면 몸이 마비 되거나 죽을 수 있는 무서운 병 말야. 잘 모르겠어? 그럼 좀 더 설명해 줄게. 우리 물속에는 상당량의 질소가 들어 있어. 그런데 보통 때는 미세한 기체 상태로 있던 질소가 높은 기압의 깊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지. 그런데 깊은 물속에서 빨리 올라오게 되면 기압이 낮아져 물속 질소는 다시 기체로 변하게 돼. 이때 발생된 질소 가스가 우리 혈관을 막게 되면 막히는 부분이 마비가 되거나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깊은 물속에 들어간 잠수부들은 매우 천천히 올라오면서 호흡을 통해 발생된 질소를 내뱉어야 한단다.

### 내 이름은 인어공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문이라, 농도가 낮은 쪽 목욕탕 물이 농도가 높은 쪽 사람 피부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피부 넓이가 늘어나니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지.

나도 쪼글쪼글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좀 상황이 달라. 난 바다에 사니까 목욕탕 맹물이라 반대 현상이 나타난단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내 피부가 소금에 절인 것처럼 되는 거야. 맹물에 담가서 피부가 늘어나 쪼글쪼글해지는 게 아니라 소금에 절여 물이 빠져 나와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져. 물속에서 생활하다보니 피부가 탄력이 없어서 왕자님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신경이 쓰이던지.

피부보다 더 힘든 게 있어. 이정도 삼투현상 때문이야. 민물에 사는 물고기와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몸 안에 물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 민물에 사는 물고기는 새끼를 낳는 새끼를 낳을 때 몸 안의 체액 농도가 물보다 진해서 몸 안으로 물이 자주 들어오게 되잖아. 그래서 몸 안의 수분 농도를 일정하게 하려고 아가미에서 소금 성분을 자주 몸 안으로 받아들이. 몸 안에 물이 많아지니까 묽은 오줌을 계속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된대.

반대로 나처럼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가만히 있으면 몸 안의 물이 밖으로 자주 빠져나가서 몸 안에 물이 부족하게 돼.

난 관왕야. 깊이 가라앉았을 때 수압으로 인해 폐가 수축되면서 내부의 공기를 밀어내면 질소가 혈액 속으로 녹아들지 못하거든. 게다가 나에게는 물속에 산소가 잘 달라붙게 해주는 미오글로빈이 질소를 받아들이지 않게 해. 흉수 때문에 강물이 범람해서 지하실이 침수 되려고 할 때 만약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범람한 물이 지하실 속으로 들어오면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돼.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들한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천천히 올라가라고 당부하시. 미오글로빈이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급격한 기압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무리가 될 수 있거든.

오야! 이라고 보니 바다생활이 쉽지만은 않겠지? 그렇지만 푸른 바다 속에서 생활하는 게 낭만적이긴 해. 내 미모도 꾸준한 관리 덕분이야. 내가 왕자님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너희들도 가끔 인어공주 동화가 생각나면 바다로 놀러오렴. 안녕~

〈공주교과 과학교육과 교수〉

## 기고

김보경



쌀은 2004년 WTO 재협상 결과로 2014년까지 수입의무량을 41만톤까지 늘려야 한다. 밥쌀용 쌀 시판량 또한 수입량의 30%까지 확대해야하는 여건에서 국내 쌀 시장은 국산쌀과 수입쌀의 경쟁이 점차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경쟁력을 높이는 길 뿐이다. 쌀의 경쟁력은 대규모 영농을 기반으로 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호남지역(충남 및 전남북)은 2006년 전국 벼 재배면적의 53.5%(503천ha)와 쌀 생산량의 54.3%(254만2천t)를 차지하며 호남지역 쌀 생산량의 70.4%에 달하는 179만1천(총생산량의 38.

호남이었다. 이는 호남쌀이 품질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렇듯 호남쌀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우리 쌀이 수입 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호남 지역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연구자가 모두 우리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최고 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

호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자연재해 및 병충해 발생 빈도가 다소 높은 편

### 호남쌀 경쟁력이 우리쌀 지키기 근본

2%)을 국내시장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 제공에 주역을 담당하는 쌀 생산 주산단지이다. 또한 호남지역은 표고 100m이하 논 분포율이 85%로써 주로 평야지로 이루어져 있어 단 지반 집단화 및 대규모 영농을 생산비 절감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영농을 위한 다양한 속기를 갖는 최고품질 품종 육성과 병해충 및 재해저항성이 높은 품종 재배 확대가 필요하고 단지별 집단화에 알맞은 맞춤형 재배기술이 생산현장에서 활용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다한다면 호남쌀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품질 고급화는 달성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쌀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향상되어 국내 쌀 시장이 확보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며 세계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호남농업연구소 고품질육종연구실장〉

### 농지위탁제도 되레 땅투기 부추긴다

최근 정부가 농지위탁제도를 바꾸면서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를 크게 물지 않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해 양도세의 60%를 세금으로 물렸다. 그 때문에 도시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지 않았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고, 돈이 없어서 농사를 소유치 못하는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되는 피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되레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영농비 상승 등으로 돈이 부족한 농민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릴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게 될 것이다. 그 농지는 도시 부유층들의 땅투기 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 ▲이준영·광주시 서구 마죽동

<b>光 卍 日 報</b>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제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영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